‘19년 2Q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2. 2PAGE. 연결 손익 – 매출 및 이익

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실장입니다.

2019년 2분기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자료 2페이지입니다.

당사는 이번 2분기에 **매출 6조 4,188억원**, **영업이익 1,800억원**,
세전이익 1,60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분기기준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 1분기 대비 9.5%,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4% 증가하면서
다시 한 번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하였습니다.

매출은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에도,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철강, 화학 사업 호조 및 LNG 트레이딩 확대에 힘입어
분기 매출 6조원 이상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중국향 가스 판매 호조와 트레이딩, 자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호조로 **분기기준 사상 최대인 1,8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분기 자원 및 트레이딩 전반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인
1,644억원을 기록한 이후 1분기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자원개발外 무역 및 자회사 전 부문의 고른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종합사업회사의 안정적 포트폴리오를 갖추며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세전이익 역시 미얀마 육상 가스관 호조세에 힘입어
분기기준 사상최대인 1,60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9년 2Q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3. 3PAGE. 연결 손익 – 부문별 상세

다음은 **부문별 상세 손익**입니다.
실적 자료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 1,800억원은 **무역 406억원**, **미얀마 가스전 1,243억원**,
무역 및 투자법인 134억원으로 구분됩니다.

무역 부문은 국내철강, 화학 사업 호조세를 바탕으로
분기 영업이익 400억원 이상의 호실적을 다시 한 번 달성하며
보호주의 확산 및 국내외 경기 우려 고조에도
굳건한 무역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당사를 경기 민감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높은 시장 불확실성 등 거센 외풍에도
지속해서 견조한 이익을 달성하고 있어,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분산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당사 역량이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3PAGE. 연결 손익 – 부문별 상세

영업외손익에 대해 말씀 드리면,

순이자비용은 LIBOR 금리 하락 및 운전자본 감축에 따른 무역금융 비용 감소로 전분기比 개선된 **2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육상가스관은 539억 입방피트 판매에 힘입어 **195억원**의 지분법 이익을 거두었으며

관계기업 손익은 웨타동 프로젝트에서 전분기 상품 선물 평가손실분 환입으로 81억원의 이익을 기록하고,
KOLNG에서도 38억원의 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암바토비 프로젝트에서의 64억원 손실이 발생하여,
총 지분법이익은 63억원 이었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견조한 영업활동과 영업외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2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527억원 증가한 **1,2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9년 2Q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다음은 **본부별 경영실적**입니다.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연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19년 상반기 실적이고,
짙은 남색의 막대 그래프는 ‘19년 2분기 실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은 국내철강본부와 식량화학본부에서
전년比, 전년동기比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국내철강본부, 에너지본부, 부품소재본부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해외철강본부는 글로벌 통상 문제에 따른 시황 악화에도
전기전자 및 스테인리스 이익은 호조를 보였으나
유로화 약세에 따른 마진 감소로 **14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고,

국내철강본부는 강건재 판매 확대 및 포스코향 원료 장기 공급 등으로
매출, 이익 모두 호조를 보이며
186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철강본부 전체로는 **3조 4천억원**의 매출과 **33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향후 당사 취급 포스코 내수 공급량 확대 등
모사인 포스코와의 협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더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9년 2Q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스크립트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에너지본부는 미얀마 가스 판매 호조, LNG 트레이딩 물량 증가로
매출 및 영업이익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판매 현황은
5페이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화학본부는 식량사업에서 북반구 새로운 곡식 출하 전 계절적 비수기로
이익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석유화학 및 화섬수지 사업에서
장기계약 증가 및 컴파운딩 원료 공급 사업 등 신규 사업 개시로
본부 전체로는 **7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주요 소싱처가 아직은 북반구에 집중된 탓에
트레이딩 물량의 계절에 따라 변동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인수 등,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과 소싱처 다변화를 통해
이익의 변동성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소재본부는 저수익/장기 여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조정으로
매출 8천600억원, 영업이익 **1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및 전분기比 큰 폭의 개선을 이루었습니다.

4. 4PAGE. 본부별 경영실적

무역 및 투자법인은 무역 법인, 투자법인 각각 67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총 134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무역 법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 무역법인에 걸쳐 이익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인별로는 인도 법인에서 27억원, 미국 법인 19억원,
파푸아 IPP 발전소 두 곳에서 46억원, 우즈벡면방법인에서
16억원의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5. 5PAGE. 가스전 및 철강 판매 현황

다음은 5페이지의 **가스전 및 철강 판매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가스전은 2분기 총 판매량 539억 입방피트,
일평균 5.9억 입방피트를 판매하였으며,
공통비배부전 기준 **1,334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은 Take-Or-Pay 물량 해소를 위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판매량은 2분기 **총 279만톤**이었으며,
포스코재 판매는 총 판매량의 67%에 달하는 187만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포스포산 제품도 안정적으로 92만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포스코산 내수 물량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철강 부문 이익의 구조적 성장세가 기대됩니다.

6. 6PAGE. 재무구조 및 지표 추이

다음은 **재무구조 및 지표추이**입니다.

2019년 新리스회계기준 적용으로 리스 채권 및 리스 부채가
약 2,200억원이 장부에 반영되었지만,
지속적인 이익 개선 및 운전자본 감축 노력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어

총자산은 9조 9,476억원이며,
부채는 774억 감소한 6조 9,141억원,
자본은 3조 336억원 입니다.

2분기에는 순이익, EBITDA 증가로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ROE는 연환산으로 **12.8%**, **ROA**는 **3.8%**로 상승하였고,
Debt to EBITDA 배수도 **3.9배**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사 식량 사업에 대한 여러 연구원님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회사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당사 식량자원개발 그룹장께서
식량 사업 현황 및 성장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 사업 설명 -

7. 7PAGE. 식량사업 현황

식량사업 현황입니다.

당사는 산업 성장성과 내부역량,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육성 중입니다.

식량은 생산지/소비지 불일치로 국가/대륙간 교역이 필연적이어서, 교역(트레이딩)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쌀을 제외한 모든 주요 곡종을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취약국으로, 한국 정부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이 유지되는 분야가 식량사업입니다.
글로벌 산업구조 및 한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성장 잠재력이 크고, 기회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의 현재 주요 사업모델이자 핵심역량인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인접영역 진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팜사업과 RPC 사업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 터미널로 수출 물류를 확보하는 전략을 이행 중입니다.

7. 7PAGE. 식량사업 현황

당사의 식량 거래량은 4년전인 ‘15년 84만톤에서 작년 437만톤으로 급성장을 해왔으며, 금년 상반기 260만톤을 취급하여 연말 500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트레이딩 역량 제고를 기반으로 상하류 밸류체인 투자를 해서, 트레이딩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인도네시아 팜사업은 작년 흑자전환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수출 터미널은 오는 10월 상업가동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미얀마 RPC는 지난 5월 제2공장 완공을 하여, 식량분야 투자 Milestone에 따라 순차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자산 투자는 조달역량이 강화시켜 새로운 시장 개발로 이어지고, 확대된 취급 물량은 자산 회전율을 제고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8. 8PAGE. 식량사업 성장 전략

다음은 성장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핵심역량인 트레이딩을 중심으로 전후방 사업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밸류체인 사업자로 사업모델을 변화시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작년까지 1단계 물량 확대 전략으로 시장에서 곡물사업자로서의 Reputation 및 판매 역량을 제고해 왔고,
지금은 상하류를 잇는 터미널 등 Midstream 진입을 이행 중입니다.
1~2단계로 구축된 조달자산과 트레이딩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3단계에서는 수요 투자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4년 뒤인 2023년에는 금년도 예상실적의 2배인 1천만톤, 2030년에는 2천만톤 곡물 취급과 5조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회사의 명실상부한 핵심사업으로 성장시킴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식량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 시대에 선제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치와 실익을 모두 담보해내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9. 맺음말

이상으로 2019년도 2분기 실적 설명을 마무리하고,

Q&A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